

이재명 대항마 누구?...민주, 맞대응 전략 분주

국민의힘 오늘 대선후보 확정

TV 토론 등 홍준표 까다롭고

중도 확장성 윤석열 어려운 상대

행정역량 부각 정책 대결 직접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선택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가 다소 우세하지만 홍 의원의 막판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 한 관계자는 4일 "경선 룰 자체가 윤 전 총장에겐 유리하게 짜여 있다"면서도 "지금 홍 의원이 선전하고 있어 투표율에 따라 막판 이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부분은 야당 내 당심과 민심의 괴리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투표(모바일·ARS)와 일반여론조사(전화면접)가 절반씩 반영되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세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앞선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의도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윤 후보가 될 것 같다, 여의도에서 먼 사람들은 홍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며 "비밀이마포대교를 넘어오면 홍 후보가 이길 거고 마포대교를 넘지 못하면 윤 후보가 된다고 분석하더라"고 말했다.

즉, 일반 국민의 표심이 여의도로 상징되는 당심에

지 미치면 홍 의원이, 그렇지 않고 당심과 민심이 차이를 유지한다면 윤 전 총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상대로 두 사람 간의 유불리도 이런 맥락에서 따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더 쉬운 상대인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신상 문제나 TV 토론 대응 능력 등으로 판단할 때 본선 상대로 윤 전 총장보다 홍 의원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약점으로 꼽히는 20대 지지율을 비롯해 호남권·중도층에서 홍 의원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점도 민주당이 주목하는 포인트 중 하나다. 반면 윤 전 총장이 중도 확장성 등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윤건영 의원은 "대선은 후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는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며 윤 전 총장을 더 편한 대결 상대로 지목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행정역량 등 상대적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정책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는 전략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생·경제 행보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야야 양자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 상대 후보 간 유불리나 대응 전략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진영 간 총력전으로 귀결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 측의 다른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되면 홍 의원이 되면 결국 진영 대결 구도로 나뉘 싸우는 것이라 보니 두 사람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윤석열·홍준표 동률

4개기관 여론조사

文·민주·이재명 동반하락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동률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안갯속 혼전 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동시에 떨어지며 '트리플 하락' 현상을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각각 27%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3%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조사 대비 7%포인트, 홍 의원은 2%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이다.

다자 대결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상정했을 경우 민주당 이 후보가 30%의 지지율로 윤 전 총장(35%)에게 5%포인트 밀렸다. 안

대표는 7%, 심 후보는 6%였다. 홍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27%의 지지율로 홍 의원(35%)에 8%포인트 격차로 뒤처졌다. 안 대표와 심 후보는 각각 8%, 6%의 지지를 얻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8%로, 작년 7월 NBS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27%였고, 정의당은 5%였다.

응답자의 과반인 54%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답해 이번 대통령선거의 성격을 '정권 교체론'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의 49%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였다. '정권재창출론'은 지난주 대비 7%포인트 하락해 지난 5월 넷째주 조사 이후 '정권교체론'과의 격차가 가장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지난 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55%로 긍정 평가(39%)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4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들이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군공항 이전 대선공약 반영·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등 건의

국민의힘 광주시 호남정책협의회

"광주·전남 발전 위해 힘 보태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주요 국고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정운천·배준영 예결위원, 김화진 전남도 당위원장 그리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방안 대선공약 반영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광

주시 의료원 설립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경제협력 지원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국가고지자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광주송정역 환승기능 중심 선상역사 증축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등 40건 1172억원에 대해 국회 추가·증액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주발

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개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신안 비금~암태 국도2호선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남해안 명품 테마섬 조성 등 10건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확보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에 서운한 이용섭 시장 "역사왜곡 방지 대책 마련해달라"

"최근 잇단 망언, 광주시민 상처"

예산협의회서 대통령정치 주문

이용섭 광주시장 '국민의힘' 측에 내년도 예산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선거 관련 역사왜곡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전두환 찬양 및 광주비하 발언 등은 5·18유족과 광주시민

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왔다"며 "다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광주시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대통령 정치의 해주고 당 차원의 역사왜곡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생충 박사'로 불리는 서민 단국대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면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윤석열을 위해 홍여준표 씹다"는 유튜브 화면을 내보내는가 하면, 윤 후보 또한 전두환 찬양발언과 '개사과' 사진 등 광주와 호남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협의회 개최

취지에 맞춰 지역 예산확보와 대선공약 건의 등에 대한 부탁의 말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운천 예결위원은 "호남 예산 쟁기 등으로 쌓아온 국민의힘의 노력이 최근 각종 말실수로 가라앉았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내년에 광주 예산을 충분히 더 반영해 국민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광주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광주가 크게 도약하는데 열심히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입니다.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